

예산안·필리버스터 대치…여야 충돌 초읽기

민주, 한국당 없이 임시국회 여러차례 열어 패트 법안 관철
한국당, 필사저지 속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주장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데다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도 3일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고,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일단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의 1라운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패스트트랙 법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 민주당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할 방침이다. 바로 ‘살라미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노린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더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

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민주당은 안전별 임시국회 개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안전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전을 곧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1건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12월이나 1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는 국회의장 재량이며 30일 이내 짧은 기간의 임시국회가 가능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의 개회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민생’을 불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민생법안보다 우선해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이 휩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대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각 당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원내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사전 통보

논란 피하고 불출마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 본인에게 그 결과를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하위 20%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 최종 결과를 이달 하순께 확정한다. 여기에서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공천 경선에서 본인 득점의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무조건 경선을 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애초 평가 결과 전체를 일반

에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망신 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께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불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선 경쟁후보가 공천 가점 대상인 여성,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더 확실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당은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9명으로 이 중 118명이 이번 평가 대상이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9명은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과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은 여기서 빠졌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위 20%는 23명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희상 의장 ‘1+1+α’ 법안,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검토

위안부 피해자·여야 의원 반대
모급 규모 1조원 상회 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 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여럿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됐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 상설위 재정비 총선 대비

발대식 이어 공수처법 콘서트
일부 후보자 ‘대통령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역위원회 ‘뿌리 조직’인 상설위원회를 재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반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자들이 ‘청와대 근부’ 등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내세우고, 한 후보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나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미

친것 아니냐고 생각했다”는 막말을 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당선’을 맹신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는 등 후보자들이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에서 ‘상설위원회 합동발대식’과 ‘공수처법 토크 콘서트’를 했다”고 밝혔다.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가 있고, 일

선 자치구 위원회까지 조직돼 있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이날 상설위원회 합동발대식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14개 상설위원회 위원 및 선출직공직자, 지역위원회 핵심당직자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발대식과 공수처법 토크콘서트는 2020년 총선 승리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완수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1부 상설위원회 합동발대식, 2부 공수처법 토크콘서트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 토

크콘서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박병계, 안호영, 이종걸 국회의원이 패널로 나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합동발대식은 광주 시민께 단결, 절박, 겸손의 자세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둬 오직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 출마예정자는 과거 자신의 민주당 영입 과정을 예로 들어 문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려다 되레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단식 종료’ 황교안, 오늘 한국당 당무 복귀

단식농성을 종료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한다. 한국당 대표실은 1일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

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2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진본(진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건물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룡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공 장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 1170(353.925평) 건물 : 881.9㎡(266.775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7억2천4백4십만원, 최저가 (70%) 12억7백만원**

주 택

광주 남구 월산동 295-7번지 토지 : 1655㎡(503.7평) 건물 : 346.69㎡(104.9평)
덕림산방 **감정가 11억7천만원, 최저가 11억7천만원**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아 파 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70%) 3억9천2백만원**

아 파 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70%)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